

일본어 수동문의 등가번역 고찰

-요시모토 마사나의 『키친』의 용례를 중심으로-

양 호 성 *

目 次

- | | |
|-----------------|------------------|
| 1. 들어가며 | 4. 수동표현의 체계 |
| 2. 연구목적과 방법 | 4.1. 일본어 수동문 |
| 3. 번역과 등가 | 4.2. 한국어 수동문의 체계 |
| 3.1. 번역의 정의 | 4.3. 수동문 번역의 문제점 |
| 3.2. 번역의 대상 | 5. 수동문 번역분석 |
| 3.3. 대응번역과 등가번역 | 5.1. 작품의 번역분석 |
| | 5.2. 분석결과 |
| | 6. 맺음말 |
-

1. 들어가며

최근의 번역이론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해석이론이다. 해석 이론은 번역의 원문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언어 형태를 탈피하여 이해한 내용과 느낀 감정을 다른 언어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처음에는 일반 통역이나 회의 통역에 대한 것이었지만 문장의 번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번역이 오역이 난무한 번역 때문에 거의 읽기를 포기하는 수준이 되지 않게 하려면 번역어를 선택할 때 일대일로 직접 대응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일본어는 한국어와 문법구조에서 표현형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 대구외국어대학교 전임강사 일본어통번역전공

유사하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본어 번역교육에 있어서 초급수준의 교육생들은 많은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번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법적인 유사성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본어의 경우 피해수동은 피동자의 미묘한 피해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처럼 한일 양국어의 수동문은 구문이나 형태상의 제약을 받고 규칙적으로 일대일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번역 혹은 번역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일대일 대응번역에서 탈피하여 등가번역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연구목적과 방법

일반적으로 문장을 읽어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독해와는 달리 번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 영역에서 더 나아가 문맥에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문맥을 확대 해석하면 문장 간의 관계, 또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락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 문맥은 순접, 역접, 병렬, 전환, 인과관계, 번역가의 문체, 문학적인 취향 등에 의해서 번역어의 선택의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영역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먼저 번역의 정의, 번역의 대상, 대응번역과 등가번역의 이론적 체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일본 문학작품 『キッチン』의 수동문에 한정하여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용례를 비교 분석하여 유용한 등가번역 기법을 연구 하고자 한다. 또한 해석이론에 입각한 번역 등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맥상 유사수동, 능동표현을 비롯한 번역기법을 분석하여 번역가가 유념해야 할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일본어 수동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수동문을 비교하기 위해, 일본어판 소설작품 『キッチン』¹⁾에 나오는 수동문과 그에 대응하는 문장을 각각 한국어판 번역서 『키친』²⁾에서 채집하여 최현배의 분류법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어 수동문의 대응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 吉本バナナ(1998) 『キッチン』 角川文庫

2) 요시모토 바나나(1998) 『키친』 김남주 옮김. 민음사

3. 번역과 등가

3.1. 번역의 정의

번역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오래되었으면서도 참신하게 느껴지는 말도 드물 것이다. M. Lederer는 그의 저서 『번역의 오늘-해석이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³⁾

이 책의 기저를 이루는 논거는 단 한 가지 모든 것이 ‘해석’이라는 것이다. 번역도 예외가 아니다. 번역을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자주 언어의 측면에 국한 시키다보니 이를 한 언어의 낱말이나 문장들을 다른 언어의 낱말이나 문장으로 옮기는 것쯤으로 치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번역은 텍스트의 해석과 언어 외적 지식의 활용을 전제해야 한다.

간단히 정의하면 번역은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한 후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 용어들이 나타내는 각 작용은 각기 나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 작용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해에는 언어 지식과 언어 외적 지식이 개입된다. 재현의 질은 번역어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번역자의 문장력에 좌우된다. 주제에 대한 지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에 제시된 정의의 용어인 ‘텍스트’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3.2. 번역의 대상

번역은 문맥(context)이나 상황이 배제된 단어나 문장을 다른 언어로 치환하는 행위가 아니다. 번역의 대상은 통역과 마찬가지로 텍스트(text)이다. M. Lederer는 텍스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⁴⁾

글자 혹은 소리의 연속과 번역사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Text’는 활자화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발화행위로 표현되는 담화도 지칭한다. 이해를 위한 동태적 대상이 되는 빠롤(parole: 언어행위)은 지식의 정태적 대상이 되는 랑그(langue: 언어능력)의 범위를 넘어선다.

번역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정의가 이렇다면 번역행위가 단어 대 단어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인 ‘master’를 번역할 때 문맥을 배제한 상태에서 ‘억제하다’ ‘정복하다’ ‘기술, 지식 따위

3) M. Lederer(2001) 『번역의 오늘』 고려대학교출판부 서문

4) 최정화(1998) 『통역번역입문』 신론사 p.101

를 완전히 숙달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어떤 뜻을 선택하여 번역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는 이미 언어적 차원의 일대일 대응 차원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맥화(contextualisation)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번역가는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획득된 상황 지식과 해당 텍스트와 관련된 주제 배경 지식을 동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문맥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M. Lederer가 말한 대로 번역의 대상은 더 이상 상황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단어와 숙어 문장이 아닌 문맥 속에서 읽히는 텍스트와 번역사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의 번역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3.3. 대응번역과 등가번역

M. Lederer는 자신의 저서(1994)에서 해석적 번역은 등가에 의한 번역이고 언어학적 번역은 일대일 대응에 의한 번역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대일 대응과 등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쓰고 있다.⁵⁾

우리가 여기서 등가와 일대일 대응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한다. 전자가 텍스트 간에 성립된 것이라면 후자는 언어학적 요소, 단어, 구, 굳어진 통사적 구성이나 형태간에 성립된 것이다. 등가는 최초로 성립하는 일대일 대응이다. 등가는 일반적인 번역의 방법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등가에서도 일대일 대응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4. 수동표현의 체계

4.1. 일본어 수동문

사람이나 물건이 다른 동작이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으로 화자의 시점, 관심, 공감의 동작주체보다 그 동작의 대상 쪽에 있는 경우에 쓰인다.

- (1) 弟は先生に叱られた。
- (2) 先生は弟を叱った。

5) 전개서(1998) p.117

예문 (1) (2)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화자의 공감의 가족인 동생에게 있고 동생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일본어에서는 타동사뿐만 아니라 자동사도 수동표현이 가능하다.⁶⁾

- (3) 彼女は世界中の人々から尊敬されていた。
- (4) 世界中の人々が彼女を尊敬していた。

예문 (3)(4)의 경우 수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한다. 이처럼 직접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는 수동표현을 직접수동이라고 한다.

- (5) がん幹細胞によって作られる。
- (6) あのホテルはドイツの建築家によって建てられた。

예문 (5)(6)의 예문의 경우 作る (만들다) 建てる(짓다)등과 같이 동작의 결과나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던 것이 출현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의 경우에는 ~によって(~에 의해서)가 쓰인다.

- (7) 私は雨に降られた。(비를 맞아서 싫었다.)
- (8) 私は電車の中で子供に泣かれた。(아이가 울어서 싫었다)
- (9) 仕事中に客に来られた。(업무 중에 (손님이 와서 싫었다.)

등과 같이 직접수동으로는 직접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수동표현이다. 사람이 어떤 행위나 사태에 의해 민폐나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민폐수동 또는 피해수동이라 한다.

- (10) 私はだれかに足を踏まれた。(누군가로부터 발을 밟혔다)
- (11) 私はすりに財布を盗まれた。(소매치기에게 지갑을 도둑맞았다)

이와 같이 간접수동의 일종으로 피해를 입은 인간을 문장의 주어로 해서 그 인물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자기 피해수동이다.

- (12) オリンピックは4年に一度開催される。
- (13) 卒業試験は2月に行われる。

일반적으로 사회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때 사용되며 주로 결과에 주된 관심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신문 잡지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⁷⁾

6) 김은희·이경수 역(2005) 『기본일본어교육사전』 시사일본어사 pp.112-113

7) 이길원(2007) 「일본어 문법교수방법론연구」 한일언어사학회 제3회 학술발표회 요지집

<표1> 일본어 수동문의 체계

분류	문형	형식	용례
직접수동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는 수동문	Xが/は Yに/から/によって~れる/~られる	見られる 教えられる 作られる 建てられる
간접수동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수동문	Xは/が Yに ~れる/~られる	降られる 泣かれる 読まれる 死なれる
자기피해수동	피해를 입은 인간을 주어로 그의 신체 일부 또는 소유물에 영향을 받은 것을 나타냄.	XがYにZを~れる/~られる	ふまれる 盗まれる
무정의수동	무생물을 주어로 하는 직접수동문	Xは/がYに ~れる/~られる	言われる 記される 行われる 伝えられる 開催される

4.2. 한국어 수동문의 체계

최현배는 수동의 형태적 특징을 (가)남움직씨(타동사)에 입음 도움줄기 「히」 또는 「기」를 더하여 입음(피동)을 만드는 방법, (나) 「하다」 따위의 제움직씨(능동사) 「되다」 「받다」 「당하다」를 갈아 넣어서 만드는 방법 (다)어찌꼴 「아(또는 어, 여)에 도움움직씨(보조동사) 「지다」를 더하여 만드는 방법 등 세 가지로 분류 했다.⁸⁾

본고에서 분석한 한국어 수동문의 체계는 최현배, 최현배 분류법에 성광수의 의사수동(擬似受動)⁹⁾ (「맞다」 「듣다」 「먹다」)을 참고하여 수정한 분류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수동태 분류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pp.420-433

9) 성광수(1976) 「國語擬似被動文」 『관동대학논문집』 4 pp.7-14

<표2> 한국어 수동문의 체계

수동문의 종류	문 형
제1수동법	타동사어간에 수동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첨가한 수동법 보다 → 보이 <u>다</u> 먹다 → 먹 <u>히</u> 다 물다 → 물 <u>리</u> 다 씻다 → 씻 <u>기</u> 다
제2수동법	「하다」 동사어간에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을 대치한 형태 감금하다 → 감금 <u>되</u> 다 감금 받 <u>다</u> * 감금 당 <u>하</u> 다 (*유사수동) 야단 <u>하</u> 다 → 야단 <u>맞</u> 다 꾸중 <u>하</u> 다 → 꾸중 <u>들</u> 다 욕 <u>하</u> 다 → 욕 <u>먹</u> 다
제3수동법	자동사, 타동사의 「하다」 동사어간에 「아/어 지다」를 첨가한 수동법 가다 → 가 <u>지</u> 다 막다 → 막 <u>아</u> 지다 구하다 → 구 <u>하</u> 여지다

4.3. 수동문 번역의 문제점

입음꼴(수동태)은 말 그대로 입자가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꼴이다. 아래의 예문을 비교해 보면 우리말로 일본어의 동사와 다른 동사를 사용해 번역해야 하며 그대로 직역한다면 안정감이 없는 어색한 표현이 된다.

- (14) 太郎は彼女に殴られた。
- (15) 타로는 그녀에게 맞았다¹⁰⁾.

이와 같이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 문제점은 직접 일대일 대응번역했을 때 번역품질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초 중급 수준의 번역 교육생들은 수동태의 규칙적인 변화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한 대응번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기 쉽고 그 결과 한국어에서는 그다지 쓰지 않는 어색한 표현과 안정감이 없는 문체로 번역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야말로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10) 이 경우 일본어동사 殴る ‘때리다’에 대응하는 수동표현 ‘때림을 받다’라고 번역하면 한국어에서는 비문이 된다.

<표3> 한일 양국어의 수동태와 번역품질

일본어	한국어	번역품질
みる → みられる たべる → たべられる かむ → かまれる あらう → あらわれる	보다 → 보인다 먹다 → 먹히다 물다 → 물리다 씻다 → 씻기다	자연스러움
なぐる → なぐられる 教える → 教えられる わらう → わられる きらう → きられる 遠慮する → 遠慮される	때리다 → 때림을 당하다 가르치다 → 가르침 받다 웃다 → 웃음을 당하다 싫다 → 싫어함을 당하다 사양하다 → 사양 받다	어색함

5. 수동문 번역분석

5.1. 작품의 번역분석

일본어 수동문이 한국어 번역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키친』의 텍스트를 분석하기로 한다.

5.1.1. 제1수동

- (1) 窓辺で、かすかな明かりに浮かぶ植物たちが十階からの豪華な夜景にふちどられてそっと息づいていた。(p.24)
 창가에서 희미한 불빛에 드러난 식물들이 화려한 밤풍경에 에워싸여 소리 죽여 숨쉬고 있었다.(p.24)
- (2) 窓辺の草木は柔らかな陽ざしに包まれて鮮やかなみどりに輝き、はるかに淡い空に薄い雲がゆっくりと流れてゆく。(p.26)
 창가의 초목은 부드러운 햇살에 싸여 선명한 초록으로 빛나고 저 먼 옅은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p.26)
- (3) この小さな街のすべての部分に公園に路に、霧のようにしみとおる冬の重い冷気を支え切れない。押されて息ができない。そう思った。(p.78)
 이 조그만 도시의 모든 부분에 공원에 길에 안개처럼 스미는 겨울의 무겁고 싸늘한 기운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p.75)
- (4) 彼のこうこうと火に照らされた不安な横顔を見て、もしかしたらこれこそがほんとうのことかもしれない、といつも思う。(p.91)
 나는 맹렬한 불길에 비친 불안한 그의 옆얼굴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p.89)

(5) 二人の気持ちは死に囲まれた闇の中で、ゆるやかなカーブをびったり寄り添ってまわっているところだった。(p.125)

둘의 마음은 죽음으로 에워싸인 어둠 속에서 완만한 커브를 그리며 돌고 있었다. (p.122)

용례(1)의 밑줄 친 「夜景にふちどられて」에 대응하는 능동동사는 「ふちどる」이며 ‘테두리를 두르다’는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이것의 수동문인 「夜景にふちどられる」를 직역하면 ‘밤풍경에 테두리가 둘러진’이란 뜻이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역시 어색하고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번역문으로서 ‘밤풍경에 에워싸이다’로 표현되었다. 한국어 수동표현의 ‘이, 히, 리, 기’ 보조동사를 첨가하는 수동법인 제1수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용례 (2)의 밑줄 친 「陽ざしに包まれて」에 대응하는 능동동사는 「包む」는 ‘싸다’ ‘포장하다’의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이것의 수동문인 「包まれる」는 ‘싸이다’로 표현하여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제1수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용례(3)의 밑줄 친 「押されて息ができない」에 대응하는 능동동사는 「押す」로서 ‘누르다’의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번역문에서도 원문과 마찬가지로 ‘눌리다’로 표현하고 있어서 제1수동으로 분류된다.

용례(4)의 밑줄 친 「火に照らされた」에 대응하는 능동동사는 「照らす」로서 ‘비추다’라는 뜻을 가진 타동사인데 ‘비친’으로 번역하여 역시 한국어에서도 제1수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용례(5)의 밑줄 친 「死に囲まれた」에 대응하는 능동동사는 「囲む」로서 ‘둘러싸다’ ‘에워싸다’의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한국어 번역으로 보조동사 제1수동으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어의 「ふちどる、つつむ、押す、照らす、囲む」같은 동사의 수동문은 한국어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수동문으로 번역되고 있다. 한국어의 제1수동문은 일본어 수동문에 의미상으로 가장 근접해 있으므로 일대일 대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완벽하게 일대일 대응번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1.2. 제2수동

(6) いたる所にあるさまざまな花びんに季節の花々が飾られていた。(p.14)

여기저기 다양한 꽃병에 봄꽃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p.14)

(7) 母親、ああ、父親って言うべきかな。殺されたんだ。(p.66)

엄마, 아 아버지라고 해야 하나, 살해당했어. (p.62)

(8) 打ちのめされた彼を見つめて「どうも私たちのまわりは。(p.72)

심한 타격을 받은 그를 보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p.69)

(9) この半年から解放される気がする。(p.120)

이 반년에서 해방된 듯한 기분이다. (p.117)

용례(6)의 밑줄 친 「花々が飾られていた」에 대응하는 능동동사는 「飾る」이며 ‘장식하다’의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이것에 대응하는 수동동사의 번역은 ‘장식되다’로 표현되어 ‘명사+되다, 받다, 당하다’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제2수동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용례(7)의 밑줄 친 「殺されたんだ」에 대응하는 능동동사는 「殺す」이며 ‘죽이다’는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살해당하다’로 번역하여 ‘명사+되다, 받다, 당하다’의 제2수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용례(8)의 밑줄 친 「打ちのめされた」에 대응하는 능동동사는 「うちのめす」로서 ‘때려눕히다’ ‘박살내다’의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이것의 한국어 번역문은 ‘심한 타격을 받은’으로 번역하여 ‘타격받다’로서 제2수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용례(9) 「解き放たれる気がする」에 대응하는 능동동사는 「解き放つ」이며 ‘해방하다’ ‘풀어놓다’는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이것의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해방된 기분’으로 표현하고 있어 ‘해방되다’는 ‘명사+되다’로 제2수동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제2수동은 ‘명사+되다, 받다, 당하다’는 순수한 한국어 보다는 ‘한자어 단어에 되다, 받다, 당하다’를 붙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용례에서는 「飾る、殺す、うちのめす、解き放つ」와 같은 동사의 수동은 한국어에서는 ‘한자 단어 + 되다, 받다, 당하다’ 즉, 제2수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유사수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의미상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2수동으로 분류하였다.

5.1.3. 제3수동

- (10) 今回も本当にぎりぎりのところでこうしてあたたかいベットが与えられたことを、私はいるかないかわからない神に心から感謝していた。(p.32)
이번에도 정말 아슬아슬한 시점에서 이렇게 따스한 침대가 주어지는 것을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에게 감사하고 있다。(p.32)
- (11) そして雄一はどしゃぶりの雨にさらされた柳のように打ちしおれていた。それこそ真夜の底にひとりで突き落とされる。(p.86)
그리고 유이치는 꽉꽉 쏟아지는 빗속에 서 있는 버드나무처럼 풀이 죽어 있었다。(p.84)
- (12) もちろん、こんなに洗うのがつらいからではなくて、じんとしびれるような淋しいこの夜の中に、ひとり置き去りにされたからだ。(p.92)
물론 이렇게 혼자서 씻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릿지릿 밀려드는 슬픈 밤 속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이다。(p.89)
- (13) 枯れた木々のシルエットが濃く切り抜かれて、冷たい風が吹き渡ってゆく (p.119)
메마른 나무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차가운 바람이 분다。(p.116)

용례(10)의 밑줄 친 「ベットが与えられたことを」 표현에 대응하는 능동동사는 「与

える」로 ‘주다’는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이는 한국어 번역시 ‘주어지다’로 번역하여 한국어 수동표현 중에서 ‘아/어 지다’형의 수동, 즉 ‘주어지다’로 번역하여 제3수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용례(11) 「雨にさらされた柳のように」 표현에 대응하는 능동은 「さらす」는 ‘햇볕에 쬐다’ (비, 바람)을 쬐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문은 ‘쏟아지다’로 ‘아/어 지다’ 수동, 즉 제3수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용례(12) 「置き去りにされた」 표현에 대응하는 능동사는 「置き去りにする」로서 ‘내버려 두다’는 뜻을 가진 동사이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에서는 ‘남겨지다’로 ‘동사어간+아/어 지다’형의 제3수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용례(13) 「切り抜かれて」 표현에 대응하는 능동사는 「切り抜く」로서 ‘오려내다’ ‘잘라내다’ 는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이 표현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드리워지다’로서 「아/어 지다」형의 제3수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与える、さらされる、置き去りにする、切り抜かれる」 같은 동사의 경우 한국어 제3수동에 해당하는 ‘주어지다’ ‘쏟아지다’ ‘남겨지다’ ‘드리워지다’로 번역되어 제3수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5.1.4. 능동문

- (14) 雨に覆われた夜景が闇ににじんでゆく大きなガラス、に映る自分と目が合う。(p.15)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밤풍경이 번져 있는 커다란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과 눈이 마주친다. (p.16)
- (15) 埋められない空間があることを、私は誰にも教えられなくてもずいぶん早く感じ取った。(p.30)
애써 명랑하게 생활해도 메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일찌감치 깨닫고 말했다. (p.30)
- (16) 気づくと、しるほに雄一がぞうきんを手に床を拭いてくれていた。そのことに私はとても救われていた。(p.52)
유이치가 뒤쪽에서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나는 겨우 한 짐 덜었다고 안도하고 있었다. (p.51)
- (17) 私は胸の肉をえぐりどられたような気分だった。(p.66)
나는 가슴살을 도려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p.63)
- (18) 閉め出されるとこわいので裏の非常口のドアのカギをそっと開けておいた。(p.121)
혹은 내가 나간 줄도 모르고 문을 잠가버리면 큰일이다 싶어 뒤쪽 비상구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p.118)

용례(14) 「雨に覆われた夜景」에 대응되는 능동사는 「覆う」로서 ‘(표면)을 덮다’ ‘씌우다’ ‘보호하다’ ‘가리다’ ‘막다’의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은 ‘비에 젖은’으로 ‘젖다’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어에서 수동표현이라 하더라도 한국어 번역에서는 능동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용례(15)의 밑줄 친 「誰にも教えられなくても」에 대응하는 능동사는 「教える」이고 사전적인 뜻은 ‘가르치다’이다. 이 표현의 한국어 번역문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즉, ‘가르쳐주다’로서 능동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용례(16)의 밑줄 친 「救われていた」에 대응하는 능동사는 「救う」이며 ‘돕다’ ‘도와주다’ ‘구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이 표현에 한국어 번역을 보면 ‘안도하다’로 표현하여 역시 능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용례(17)의 밑줄 친 「えぐりとられたような」에 대응하는 능동사는 「えぐりとる」로서 ‘도려내다’는 뜻을 지닌 타동사이다. 이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은 ‘도려내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본어의 수동문이 한국어에서는 반대로 능동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용례(18)의 밑줄 친 「閉め出される」에 대응하는 능동사는 「閉め出す」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다’ ‘쫓아내다’의 뜻을 가진 타동사이다. 이것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은 ‘잠가 버리다’ 즉, ‘잠그다’로 능동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覆う、教える、救う、えぐりとる、閉め出す」의 경우 일본어에서는 수동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번역에서는 능동문으로 번역된다. 이러한 동사의 수동문을 번역시에는 일대일 대응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등가번역을 시도하지 않으면 한국어에서는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밖에 없다.

5.1.5. 생략

(19) さっきのえり子さんはね、この写真の母の家に小さい頃、なにかの事情で引き取られて、 ずっと一緒に育ったそうだ。(p.21)

아까 그 에리코 씨는 말이죠.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이 사진속의 엄마네 집에서 쭉 자랐대요. (p.21)

(20) 彼のそういう好みで、真冬でもなんでも二人は公園で待ち合わせたものだが、あんまり私の遅刻が多いので申し訳なくて、 妥協点として見出された地点は公園の真横にあるだだっ広い店だった。(p.34)

그의 그런 취미 때문에 우린 한 겨울에도 약속 장소를 공원으로 정하곤 했는데 내가 늦는 일이 너무 많아 미안해서 공원 옆에 있는 그저 넓기만 한 찻집으로 타협을 보았다. (p.34)

(21) 私は急に呼ばれてびっくりして立ち上がった。(p.97)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p.94)

용례(19~21)의 「なにかの事情で引き取られて」 「妥協点として見出された地点は」 「急に呼ばれて」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일본어 수동 표현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맥락에서 한국어 번역어를 넣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전후 맥락으로부터 굳이 수동문은 번역하지 않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어 수동문이라 하더라도 한국어에서도 수동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능동문이나 생략될 때도 있으므로 번역자는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일본어에 너무 억매이지 말고 한국어 독자에게 자연스러운 번역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5.2. 분석결과

위의 번역예문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4> 번역문 분석

항목	원문	번역결과	분석	분류
1	拾われる	신세를 지다	관용구(자동사)	능동
2	飾られて	장식되어	되다	제2수동
3	敷かれる	깔리다	보조동사	제1수동
4	照らされて	불빛을 받다	타동사	능동
5	覆われた	젖은	자동사	능동

상기 번역문의 분석결과 항목, 항목수, 백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일본어 수동문이 한국어의 제 1수동으로 번역되는 항목수가 14개로 백분율은 27.5%이고, 제 2수동으로 번역되는 항목수가 12개이고 백분율은 23.5%이다.

또한 일본어 수동문이 한국어의 제3 수동문으로 번역되는 항목수가 4개이고 백분율은 7.8%이다. 따라서 일본어 수동문이 한국어 수동, 또는 유사 수동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30개 항목에 58.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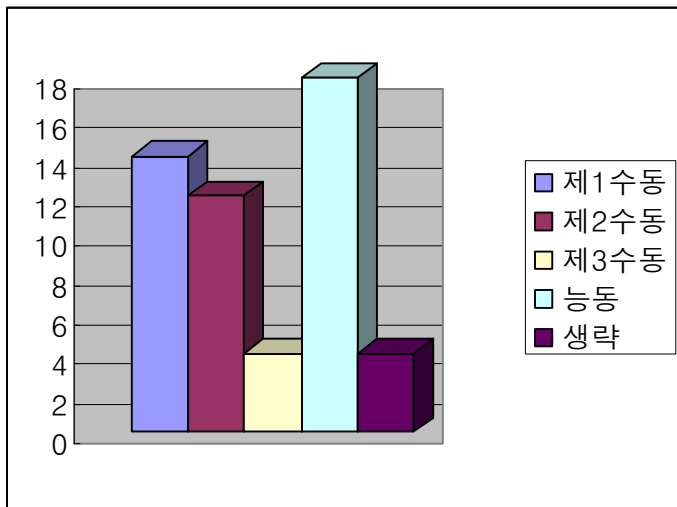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일본어의 수동문이라도 한국어 번역 결과물이 수동문으로 번역되지 않고 오히려 능동문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18개 항목에 35.3%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략되는 경우도 4항목에 7.8%로 나타나 일본어의 수동이 한국어에서는 능동문이나 생략 등 형태적인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22항목에 43%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등가번역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표5> 번역문 분석결과

번역기법	용례수	백분율(%)
제1수동(이히리기)	14	27.5
제2수동(되다, 받다. 당하다 맞다, 듣다, 먹다)	12	23.5
제3수동(아/어 지다)	4	7.8
능동문	18	35.3
생략	4	7.8



6. 맺음말

분석결과에서 분석한 『키친』에서는 작품의 등가번역을 위한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 (가) 한일 양국어 수동문은 체계가 다르다.
- (나) 한일 양국어 수동문은 반드시 일대일 대응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 (다) 한국어 수동문 외에도 오히려 능동문로 번역해야 안정감이 있는 경우도 많다.
- (라) 문맥에 따라 수동태의 의미를 가진 자동사로 의역하거나 생략 등의 번역 기법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일본어 수동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한국어의 수동문으로 일대일 대응번역을 하면 어색한 번역

이 되거나 이해하기 힘든 번역어투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법적인 차이점과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일대일 대응에 의존한 대응번역의 경우, 한국어 번역문은 번역품질이 떨어지거나 비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번역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문법적인 접근보다 앞뒤 문맥과 내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 결국 고품질의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원문 텍스트의 철저한 해석을 시도하고 언어학적인 지식과 맥락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의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표현단계에서는 한국어 실력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번역자 자신의 부단한 노력은 말할 것도 없다.

【参考文献】

- 성광수(1976) 『국어의사피동문』 관동대학논문집4
 이길원(2007) 「일본어문법 교수방법론 연구」 한일언어사학회 제3회 학술발표회 요지집
 이석규외(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도서출판 역락
 青野貞夫(2003) 「일본어 수동태 번역의 문제점 고찰」 단국대학교 대학원
 최정화(1998) 『통역번역입문』 신론사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M. Lederer(2001) 『번역의 오늘』 전성기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분석자료>

- 吉本バナナ(1998) 『キッチン』 角川文庫
 요시모토 바나나(1999) 『키친』 김난주 옮김 민음사

要 旨

日本語と韓国語はその形態論的な類似性から一対一の対応翻訳が有効であるとよく言われる。この論文は日本語の受身文を韓国語に翻訳するとき、果たして言語学的な一対一の対応翻訳がどのくらい有効である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研究方法としては日本文学作品である吉本バナナの『キッチン』と同作品の韓国語の翻訳書から受身文を取り出して一々対照分析を行った。

その結果、日本語の受身文が韓国語の翻訳文には同じく受身文に翻訳されないケースを43%にも上ることが分かった。即ち、言語学的な一対一の対応翻訳ではなく、日韓両語の文法的な差異点や文脈から取れる意味を理解し、再構成して表現する、いわゆる等価翻訳が行わ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もっとも韓国語らしい、なめらかな等価翻訳を行うためには、様々な翻訳技法をはじめ、工夫が必要である。従って、日本語の受け身文を韓国語に翻訳するときは一律的に韓国語の受身文に翻訳すると、きこえない非文になるか、理解しづらい訳文になりうる。

翻訳において最終的には文法的なアプローチより前後の文脈の正しい解釈を行った上で、翻訳作業を行うことが最も重要である。高品質のなめらかな韓国語に翻訳するためには出発語の原文テキストの徹底的な解釈を行って言語学的な知識は勿論、テキストの文脈から表わす意味にも注意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キーワード：受身文 等価翻訳 対応翻訳 文脈 翻訳技法 出発語 到着語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712-721) 경북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128-1대구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電 話 : 053-810-7053
e-mail : kopana@naver.com